

전남, 고령화 수요는 높지만 돌봄 인프라 전국서 가장 취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고령화 수요는 높지만 돌봄 인프라가 취약한 시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이들 시군에 의료·재가복지 정원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는 한편 읍면동 경로당을 활용한 재가서비스 위성 거점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최근 발간한 인구통계 브리프 ‘고령인구 지역 격차와 복지 인프라 대응력 진단’에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도달했지만 지역별로 고령화 양상이 달라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브리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10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2%를 차지해 이미 초고령사회

국회미래연구원 브리프 “14개 시군 ‘긴급대응형’”

노인인구 중 ‘75세 이상 비중’ 상위 10위 중 8곳

의료재가복지 확충·전문인력 최우선 배치해야

기준(20%)을 넘어섰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고령화 수요 압력과 노인의료·재가복지 인프라의 상대적 공급여력을 분석하고, 지역을 4개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전남의 14개 시군은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 수요가 가장 높지만 관련 인프라가 가장 취약한 ‘긴급대응형’으로 분류됐다.

긴급대응형으로 분류된 전국 70개 시군구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이 가

장 많았고, 이어 경북 12개 시군, 강원 10개 시군, 경남 7개 시군, 전북 6개 시군, 충남 5개 시군 순이었다.

특히 전남(55.8%)은 경북(56.1%)·전북(55.7%)과 함께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55명 이상의 노인인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남(55.75)은 경북(56.10), 전북(55.66)과 함께 노년 부양비가 가장 높은 시도로 분류됐다.

후기고령집중도
최상위 시군구 현황

시군구	후기고령집중도	노년부양비	유형
고흥군	53.68	88.8	집중 관리형
보성군	53.64	83.1	긴급 대응형
곡성군	52.77	70.4	집중 관리형
진도군	52.49	59.2	긴급 대응형
장흥군	52.44	70.6	긴급 대응형
함평군	52.39	74.2	긴급 대응형
강진군	52.20	73.0	긴급 대응형
구례군	51.95	74.9	집중 관리형

자료제공=통계청

아울러 65세 이상 노인 중 7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을 의미하는 ‘후기고령집중도’가

50% 이상인 시군구는 전국 22곳인데, 상위 10곳 가운데 8곳이 전남이었다.

고흥군이 53.68%로 1위, 보성군 2위(53.64%), 곡성군 4위(52.77%), 진도군 6위(52.49%), 장흥군 7위(52.44%), 함평군 8위(52.39%), 강진군 9위(52.20%), 구례군 10위(51.95%) 순이다. 브리프는 긴급 대응형 지역은 노인의료·재가복지 서비스 기반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민간 공급만으로 서비스 공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산간·인구분산 지역에서는 국가·광역·기초지자체, 사회서비스원 등 공공부분의 참여를 통해 직접 설치·운영, 공공위탁, 인력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공급기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 직영 시설 우선 배치나 재가서비스 도입 등이 어려운 지역에는 과도기적 보완 수단으로 읍면동 단위로 분포돼 있는 경로당의 물리적 접근성을 활용한 재가서비스 위성 거점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브리프를 낸 이체정 부연구위원은 “전국 단위의 획일적 접근보다 지역의 인구구조와 생활권 여건에 따라 노인의료·재가복지 서비스 공급기반, 재정지원, 기존 지역자원 연계 방식을 다르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분석이 인구구조와 시설정원·이용가능인원에 기초한 단면적 진단인 만큼, 향후에는 실제 서비스 이용, 대가수요, 종사자 수급, 이동거리와 접근성을 결합해 지역별 대응전략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광주특별시, 미국 미주리서 남도 알렸다

10만명 찾는 ‘페스티벌 오브 네이션스’서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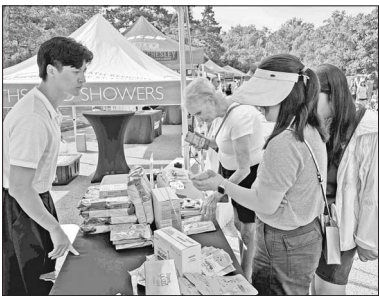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미국 미주리주와의 자매결연 40주년을 맞아 현지 대표 다문화축제에서 지역 농수산물과 관광자원을 선보이며 남도의 맛과 멋을 알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미주사무소는 미주리대학교 아시아센터와 함께 최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타워 그로브 공원에서 열린 ‘2026 페스티벌 오브 네이션스(Festival of Nations)’에 참가해 지역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페스티벌 오브 네이션스는 세계 각국의 음식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세인트루이스의 대표적인 다문화축제다. 매년 1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행사로,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전통음식·공연·문화를 소개한다.

미주사무소는 축제 현장에 마련한 홍보부스에서 전남광주지역의 대표 농수산물과 관광자원을 소개했다. 곱창김을 비롯한 지역 김 제품을 전시하고, 전남광주특별시가 국내 주요 김 생산지라는 점을 현지 방문객들에게 알렸다.

고흥 유자와 나주 배 등 지역 특산품을 소개하는 시식 행사도 진행했



다. 방문객들이 제품을 직접 맛볼 수 있도록 해 지역 농수산식품의 품질과 경쟁력을 알리고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지난 5일 개막한 2026여수세계컵 박람회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박람회 마스코트인 ‘다섬이’ 캐릭터 상품과 홍보자료를 전시하고 주요 관광지 안내 책자를 배부해 섬박람회의 프로그램과 전남광주지역 관광자원을 소개했다.

현장 홍보 효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산하기 위한 참여 행사도 마련했다. 홍보부스를 찾은 방문객이 미주사무소의 SNS 채널을 팔로우하면 기념품을 제공하고, 부스 사진이나 영상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한 방문객에게는 추가 기념품을 증정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흥겨운 탈춤 공연을 관람하는 시민들 추석 연휴를 맞아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봉동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마당에서 열린 ‘2026 흥겨운 탈춤 한마당’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사) 전통연희 놀이연구소 단원들의 ‘말뚝이춤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남도 콘텐츠 한자리에…10월 곡성서 콘텐츠 페어

9~11일 섬진강기차마을서 애니·캐릭터·게임 등 60여개 전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게임, 미디어아트 등 남도의 다양한 콘텐츠를 한자리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곡성군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행사는 콘텐츠 전시·체험존과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대학 홍보관, 가족 단위 체험프로그램, 명사 특강, 콘텐츠 비즈니스 상담회 등으로 진행된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게임문화 가족 캠프’에서는 브롤스타즈와 닌텐도 스포츠 등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시·체험존에서는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스토리, 미디어아트, 게임, 메타버스·가상융합 등 여러 장르의 콘텐츠 60여개를 선보인다. 지자체와 유관기관, 대학이 참여하는 콘텐츠 홍보관과 10개 이상의 부대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정신건강부터 복지까지 한 권에
전남광주 ‘다시, 봄’ 1만부 발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신건강을 비롯해 고용·금융·복지 분야의 지원제도를 한데 모은 ‘다시, 봄: 당신의 일상을 찾아가는 마음건강안내서’ 1만부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지역 27개 시·군·구와 정신건강·고용·금융·복지 분야 유관기관 등 180여곳에 배포된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지원정보를 시민들이 한눈에 확인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됐다.

자살위기는 정신건강 문제뿐 아니라 실직과 채무, 생계 곤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관련 지원제도가 기관과 분야별로 나뉘어 있어 위기에 놓인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 못하거나 적절한 지원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있었다.

통합특별시는 이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신건강과 고용, 생계·금융, 청소년, 복지·의료 등 5개 분야의 주요 지원제도를 하나의 안내서에 담았다.

제도별 지원 내용과 이용 방법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안내서에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 등 위기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상담전화기 수록됐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아카데미홀 대관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사옥 1층)

스크린 및 음향 최고시설 완비

교육연수, 연회, 세미나 등

시설 사용인원(최대) : 150명

대관료 : 오전 10만원/시간 · 오후 20만원/시간
※ 오전·오후 이용시간은 별도 문의

